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美 중량급 전직 대사들... 中 한국통 총출동

■ 외국 조문사절 누가 오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외국 조문사절단의 화려한 변변이 드러났다.

주로 DJ정부 시절의 외교수장을 지냈던 거물급 인사들이 각국 조문단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한파'를 대표하는 전직 주한대사들이, 중국은 현직 외교부의 한국라이이 출동한 점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명망과 중량감을 갖춘 지한파 인사 10명으로 조문사절단을 꾸렸다. 조문단은 장례식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6시 군용기 편으로 오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조문단 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일치된 코드를 보였던 2000년 10월 북한을 방문했고 방북 이후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인연이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토머스 허바드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주한 미국대사로 활약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1980년대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기간 인연을 맺었고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DJ 처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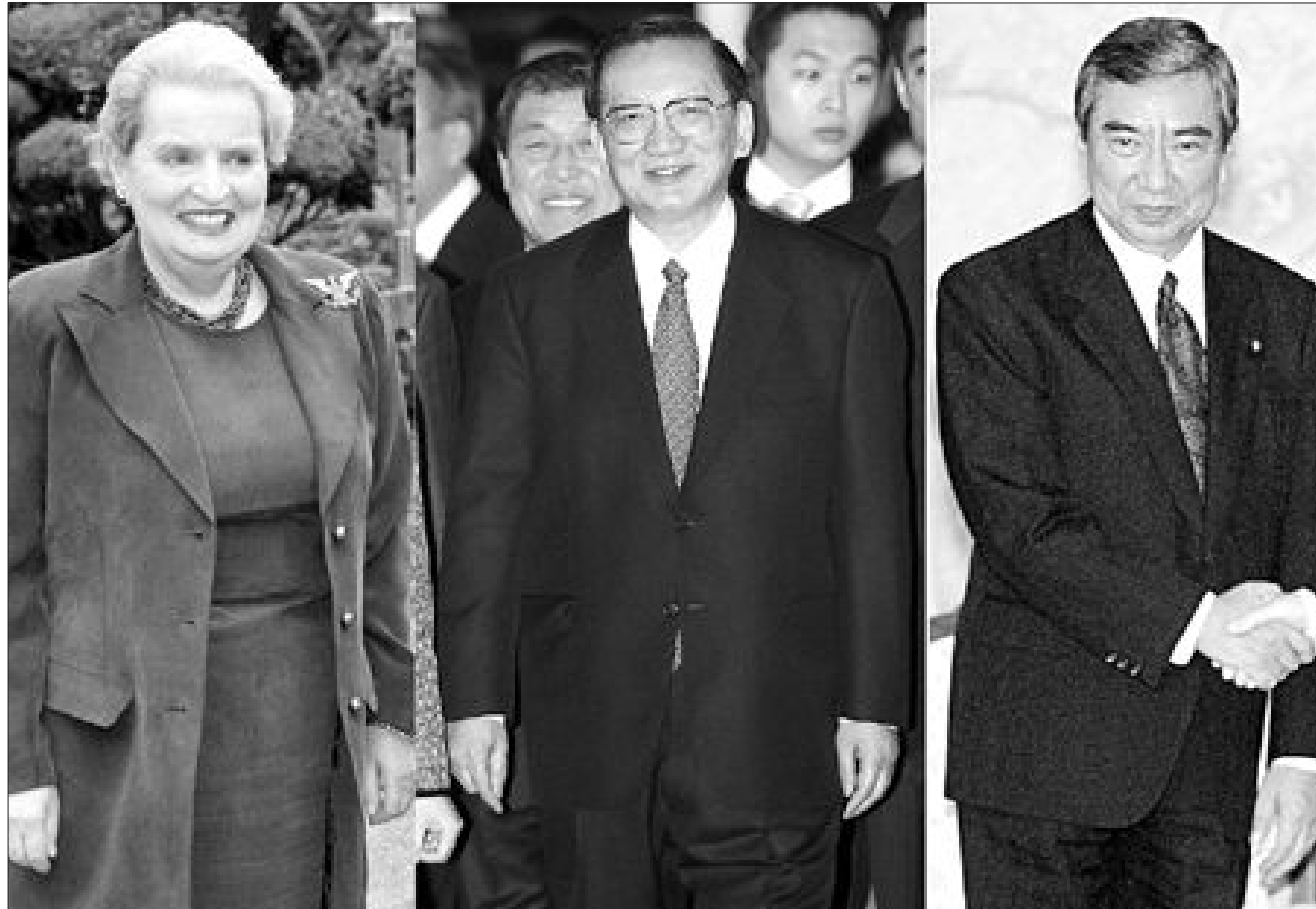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는 지난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김 전 대통령이 제안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또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과 짐 리치 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 에번스 리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모두 '햇볕정책'을 지지한 인물들로 유명하다.

해럴드 고(한국명 고흥주) 국무부 법률 고문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조문특사를 맡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외에 현직 외교부의 한국통들을 중심으로 모두 11명의 사절단을 구성했다.

중국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 장례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미·중·일은 23일 국회에서 거행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할 특별조문단을 김대중 정부시절 외교 수장을 중심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미국 조문단 대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 중국 대표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가운데),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오른쪽). /연합뉴스

美 올브라이트·中 탕자쉬안·日 고노 등 입국

11개국 조문사절단 파견... 42개국에서 '조전'

다. 조문단은 이날 낮 베이징에서 CA125편에 탑승, 오후 4시5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외교부 부장을 지내며 한중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김 전 대통령과 깊은 교감을 나눴으며 DJ 퇴임 이후인 2004년 6월에는 장쩌민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과의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현직 중에서는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 후정쥬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우 장하오 아주국 부국장, 리원량 대변인실 참서관, 광웨이빈 의정국 참서관, 바오쉬후이 아주국 부처장, 샤오 찬 특사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중 후정쥬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월초 외교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 북·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아 주목되는 인물이다.

일본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 시마다 외무성 동북아과장 등으로 '단출한' 조문단을 보내기로 했다. 조문단은 이날 오후 6시55분 NH1293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73년 김 전 대통령이 도쿄에서 납치된 이후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고노 전 의장은 의상으로서 한국을 방문했었다.

한편 러시아는 본국에서 별도의 조문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

한 러시아 대사가 조문하기로 했다.

영국은 로드 앤드루 아도니스 교통부 장관, 캐나다의 배리 데블린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 공동회장, 호주는 안소니 비언 통상담당 정무차관이 각각 조문사절로 방한한다.

이밖에 필리핀의 아퀴노 전 상원의원, 인도네시아의 펜재추 무역부 장관, 말레이시아의 리 쟁 롱 외교부장관, 캄보디아의 키유 칸하리스 정보통신부 장관, 동티모르의 아라우조 국회의장이 조문사절로 장례식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김 전대통령 국장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모두 11개국이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21일까지 세계 42개 국가 정상 또는 외교장관이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밝혔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노르웨이 노벨평화센터 등 11개 단체와 개인이 애도서한 또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영국·프랑스·유엔·남아공·브라질 등

北 공관원들 南 대사관 조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앞두고 지난 21일 해외주재 북한 대사들의 현지 조문이 잇따랐다.

이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유엔, 브라질, 남아공 등의 북한 대사들은 현지 한국 대사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각각 조문했다.

◇영국=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낮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조문계획을 알린 뒤 직원 1명과 함께 주영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자 대사는 방명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썼다.

◇프랑스=순수신 프랑스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후 사전 예고없이 한국대사관 1층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순 대표는 운전기사만 대동한 채 한국대사관에 들러 영정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유일한 대사와 잠시 환담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순 대표는 조문록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 실현을 위한 길에 공로를 쌓으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었다.

◇유엔=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건물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신 대사는 조문록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록 서거했으나 민족의 화해와 통일 위업에 바친 그의 공적은 민족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안희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도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부하 직원 1명을 대동하고 프리토리아 시내 한국대사관에 들러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안 대사는 조문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남긴 업적은 온 민족이 깊이 추억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브라질=수도 브라질리아 주재 박혁 북한대사는 이날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대사는 이날 오전 사전연락 없이 수행원 1명과 함께 한국대사관을 찾아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박 대사는 방명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지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에 남기신 업적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日 민주 최대 330석, 자민 100석”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일본의 정권이 걸린 총선이 다음주로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승 구도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전체 중의원 480석(소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300석을 훌쩍 뛰어

넘어 최소 318석, 최대 330석도 가능하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자민당 의석은 현재의 300석에서 3분의 1로 급감하고, 민주당은 115석에서 거의 3배로 불어나게 된다. 민주당이 320석을 차지하면 중의원의 3분의 2를 석권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71명을 내세운 소선거구에서 최소 228석, 최대 25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180석이 걸린 비례대표에서는 90~9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아세안 '수치 여사 석방' 공동호소문 추진

아세안 고위급 관계자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이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 발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dpa 통신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22일 보도했다.

아세안 고위급 관계자들은 지난 20~21일 인도네시아에서 모임을 갖고 미얀마 정부에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수 파이자사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아세안 고위급 관계자들은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데 공감하고 자국 외교부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자사 대변인은 공동 호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으며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대중 前 대통령께 서거를 전심으로 애도합니다.

만민의 평화적도대비시며 비시대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민족정기하에
큰 대통령임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천원씩 후원금 모집 (2009년 8월 23일 ~ 9월 30일까지)

모든 차과